

충북 괴산 지역어의 음운현상 연구

- 1980년대의 언어 공시태와 비교하여 -

김 수 영 *

I. 서론

충청도 방언은 대방언권 구획상 중부 방언의 한 하위 방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이는 행정구역상의 구분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충청남북도에 속한 전 지역의 언어를 독자적인 하나의 방언권으로 묶기는 어렵다. 충청도 방언에 대해서는 도수희(1963, 1965)와 김형규(1972)에 이르러 독자적인 방언권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고 그 전까지는 경기 혹은 중선 방언(中鮮方言)의 하위 방언으로만 설정되었다. 충청도 방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음운, 형태, 문법, 어휘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지역상 표준어의 기반이 되는 중부 지역에 속해 있어 표준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이 지역 방언 연구는 기타 방언에 비해 활발한 편이 아니다 (방언연구회 2001: 344~349).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는 그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인접 방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 여기에 중앙어로부터의 언어적 차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충북 방언과 인접 방언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충북방언’ 이라는 용어 자체도 명확한 개념 규정 없이 연구자들의 기호에 따라 ‘충북방언’, ‘충북 지역어’, ‘충청북도 방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명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과정

침뿐만 아니라 개념도 불분명해 ‘충북 방언’이라 하면 충청북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중부 방언의 하위 방언 정도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박경래 2003:21).

해방 이후 충청북도 지역의 방언을 연구한 선행 연구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충청방언권을 인정하려는 도수희(1963, 1987)와 김형규(1972, 1974)의 연구가 있지만 이는 체계적인 방언조사에 기반했다기보다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나눈 편의상의 방언구획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는 대방언권 중심으로 충청북도 방언을 보조적 자료로 다루고자 한 최학근(19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등의 방언 자료집이 출간되었다. 1980년대 초 김충희(1984, 1985)등은 충북 방언의 하위방언권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이어서 충청북도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방언조사를 시작하여 충북 방언에 대해 언어지리학적으로 접근한 결과가 김충희(1990, 1992)이며 박경래(1992, 1998)은 충북방언의 음운체계와 문법적 특징 그리고 하위 방언구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논의하였다. 또 충북방언의 하위 개별방언에 대한 논의는 박명순(1975), 박경래(1984)이래로 조항근(1986), 박경래(1993)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제천, 단양, 영동, 괴산 지역 등의 음운현상 및 문법적 특징을 기술하고 규칙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공식적인 연구와 달리 전철웅(1998)은 충북방언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박경래 2003).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의 하위 행정구역에 속하는 괴산군의 지역어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괴산방언의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을 밝힌 박경래(1984), 괴산 지역의 음라우트를 다룬 김태영(1986)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또는 단순 조사에서도 그 구체적인 지역은 보은, 청주, 충주, 제천 등을 중심으로 한 경우가 많다. 충청북도 북동부에 위치한 괴산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과거에는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 아니었지만, 경상북도 문경 지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조건 및 교통 및 통

신의 활성화와 더불어 방언의 접촉 지역으로서 경북방언의 전파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이 지역어를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충청북도 괴산군 지역어의 음운현상, 그 중에서도 움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화를 대상으로 방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며, 이를 박경래(1984)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30여년이 흐른 지금 그 지역의 언어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지역에 미친 경북방언의 영향력 또한 살필 것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방언조사 지역인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에 대해 개괄하고 방언조사 목적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음운현상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움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화가 그 대상이 된다. 4장 결론에서는 논의된 사항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나아가야 할 점 등을 언급할 것이다.

II. 조사지역의 배경과 조사방법

1. 조사지역의 배경¹⁾

충청북도 괴산군은 1읍 10면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이다(〈그림 1〉). 1979년 괴산면이 읍으로 승격하고 2003년 본래 괴산군에 포함되어 있었던 증평읍, 도안면이 증평군으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행정구역 체제를 갖추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에 의하면 청천을 제외한 괴산, 연풍, 청안지역은 원래 백제의 영역이었다가, 고구려의 영역에 들어간 후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 신라에 통합되었다. 삼국이

1)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goesan.go.kr)



〈그림2.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3〉

2. 조사절차에 대한 보고

이 절에서는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에서 실시한 방언조사 전반의 조사계획, 일정, 조사목적, 조사장소, 조사내용, 제보자, 질문지 등에 관한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1) 조사계획과 일정

조사는 2011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되었다. 7월 17일 오후 조사 지역에 도착해 제보자를 만나뵙고 조사 목적 및 진행 방법 등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린 후 동의를 얻어 두 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날 오전 다시 조사를 계속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3) 네이버 지도(<http://maps.naver.com>)

얻었다. 이어서 18일 오전에 세 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하여 준비해간 질문에 대하여 첫 전체 조사를 마쳤다. 오후에는 옆 마을(불정면 삼방리)에 거주하는 다른 제보자를 만나뵙게 되어, 이 제보자를 대상으로 첫 조사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 중심으로 두 시간 가량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언조사를 마쳤다. 방언조사의 전체 과정은 준비해 간 녹음기에 모두 녹음하여, 후에 응답형을 다시 듣고 정리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다.

방언조사 전에 2-3주간 조사 주제와 질문 항목을 선정하고 질문지를 준비하였다. 조사 주제는 괴산 지역어의 음운현상으로, 크게 움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화로 나뉜다. 이와 함께 조사 지역에 관한 자연지리, 인문지리적 정보를 얻기 위해 백과사전, 문헌 자료, 영상,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괴산 지역어에 관한 선행 연구와 지역어 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충청북도 방언에 관한 사전 학습을 하였다. 제보자 선정 과정 및 질문지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서술할 것이다.

(2) 조사목적

괴산 지역어의 음운현상을 주제로 하는 이 방언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1980년대 초반 실시된 선행연구인 박경래(1984)의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30여년이 흐른 현재 같은 지역의 음운현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박경래(1984)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세대별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크게 제보자 집단을 노년층(G_1 , 70대 이상), 청년층(G_2 , 30대 이하)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움라우트, 자음군 단순화 등의 음운현상 조사 결과에서 50대는 이 두 집단의 중간에 있는 연령층으로서, 세대를 가르는 경계가 되는 연령층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제보자 두 명은 각각 81세, 75세로, 박경래(1984)의 연구 진행 당시 50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두 세대 간 경계에 있으면

서 양 집단의 특징을 고루 지니고 있었던 연령층이, 현재 노년층이 되어 어떤 방향으로 언어적 특질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데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지역에 전파된 경북방언의 영향력을 살피는 것이다. 충북 괴산 지역은 경상북도와 인접지역으로서, 교통과 통혼 등에 의해 경북방언의 언어적 특징이 전파될 확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즉 방언접촉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것이다. 이미 박경래(1984)에서도 특히 청년층(G_2)에게서 경북방언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30여년이 흐른 지금 과거와 비교해 동남방언의 전파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언어적 특징이 다른 특징에 비해 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전파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에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 있다.

(3) 조사장소

방언조사는 제보자의 집에서 진행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조사였는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오후, 두 번째는 오전에 진행하였다.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방해받지 않고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4) 조사내용

이 방언조사의 조사 내용은 충북 괴산 지역어의 음운현상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움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화로 세분화된다.

(5) 제보자

이 방언조사에서 대상으로 한 제보자는 총 세 명인데 제보자 (가)

와의 질문 및 대화를 통해 전체 조사를 하였고, 제보자 (나)와는 제보자 (가)와의 면담에서 보충할 항목 위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괴산 지역의 용언 활용에 대하여 그 지역 출신의 50대 남성 제보자 (다)⁴⁾와 짧은 면담을 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III장에서 자음군 단순화'를 다룰 때에 추가적인 정보가 되었다. 제보자 조사표는 다음과 같다.

1) 제보자 (가)

| | |
|---|-----------------|
| 조사자 이름: 김수영, 이현정 | 조사 장소: 가정집 |
| 조사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지통마을 | |
| 조사 기간: 2011년 7월 17일~2011년 7월 18일 | |
| 제보자 이름: 이순원(여) | 나이: 81세(1931년생) |
| 출생지: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농촌) 거주지: 조사지와 동일 해당 지역 거주기간: 60여년 | |
| 학력: 소학교 졸 생업: 농업 선대 거주지: 소수면 아성리 부처골 선대 생업: 농업 | |
| 제보자 선정 과정: 대화를 한 뒤 제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방언 조사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함. | |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사항: 특별한 것은 없음. | |
| 조사 내용: 음운현상(전체 조사) | |

4) 제보자(다)는 조사 지역 출신의 53세 남성으로,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 짧게 면담하였다.

2) 제보자 (나)

| | |
|---|-----------------|
| 조사자 이름: 김수영, 이현정 | 조사 장소: 가정집 |
| 조사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안촌(농촌) | |
| 조사 기간: 2011년 7월 18일 | |
| 제보자 이름: 김만목(남) | 나이: 75세(1937년생) |
| 출생지: 조사지와 동일 | |
| 학력: 중졸 생업: 농업 선대 거주지: 조사지와 동일 선대 생업: 농업 해당 지역 거주기간: 태어나 자랐음 | |
| 제보자 선정 과정: 제보자의 집을 방문하여 방언 조사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선정함. | |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사항: 특별한 것은 없음. | |
| 조사 내용: 음운현상 추가 조사(움라우트 항목 전체, 자음교체 항목 일부, 자음군 단순화 항목 일부) | |

(6) 질문지

본 방언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질문지를 준비하였다. 총 질문 개수는 403개였고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지역어 조사 질문지(2006)》를 기초로 하였다. 필요에 따라 제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자료 및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적극 활용하였다.

III. 음운 현상

이 장에서는 괴산 지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언어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움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화가 될 것이다. 이 음운현상을 선택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움라우트 현상은 박경래(1984)에서 세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음운현상이었고 노년층(G_1)과 청년층(G_2)을 가르는 경계가 되는 연령층은 50대였는데, 당시 50대는 현재 80대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 연령층은 이번 방언조사의 체보자료 대표될 수 있다. 따라서 움라우트 현상을 통해 이 지역의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현상은 단어 발음의 재구조화 현상을 잘 드러내 주는 음운현상의 하나인데, 이 현상은 박경래(1984)에서 혼란을 보였다. 따라서 30여년 이 흐른 지금 재구조화 현상의 진행 정도와 그 방향을 살피는 것 또한 이 지역어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음군 단순화는 인접지역인 경북방언과의 차이를 보이는 현상으로 박경래(1984)에서 언급되었으며, 이에 바탕해 방언접촉 혹은 전파 현상에 관해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었다(박경래 1985). 따라서 이 현상을 통해 이 지역어에 전파된 경북방언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선택하였다.

1. 움라우트

움라우트란 뒤에 오는 전설모음 ‘이’ 나 ‘활음 ㅚ’의 영향을 받아 후설모음 ‘아, 어, 오, 우, 으’가 각각 전설모음 ‘애, 예, 외, 위, 이’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괴산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이 박경래(1984)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다루며 그러한 차이를 보이는 까닭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옴라우트는 이제까지 여러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옴라우트가 공시적 음운현상인지 통시적 음운현상인지에 대한 논의는 학자마다 그 견해가 다양하다. 이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옴라우트를 통시적인 음운현상으로 보는 대표적인 견해는 최명옥(1988)인데, 공시적인 옴라우트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밝히고, 경남방언의 예를 중심으로 현대 국어에서 그 조건에 맞는 공시적인 옴라우트는 없다고 보았다. 특히 사동 및 피동 접사를 개별 형태소로 보지 않고 앞 어간에 결합된 하나의 형태소로 보았기 때문에 사동 및 피동 접사로 인한 옴라우트 역시 통시적이라고 하였던 점이 특징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견해가 김성규(1987)로서 사동 및 피동 접사의 생산력을 논하며 이 접사가 앞 어간과 결합되었을 때에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대로 공시적인 옴라우트를 인정한 견해는 김완진(1963) 이후 서정목(1981)으로 이어지며 형태소 내부의 옴라우트는 대부분 통시적 옴라우트, 형태소 경계의 옴라우트는 대체로 공시적인 옴라우트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박경래(1984)의 경우에는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를 따라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옴라우트는 통시적인 옴라우트,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옴라우트는 공시적인 옴라우트로 분류하였고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옴라우트의 경우에도 수의적으로 발생하면 공시적인 옴라우트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옴라우트의 동화주는 주격조사 ‘이’, 계사 ‘이’와 명사화 접미사 ‘-기’, 사동 및 피동접사 ‘-아-, -히-, -기’ 등이다.

박경래(1984)에서는 이에 따라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옴라우트의 실현양상을 보였다. 노년층(G_1 , 70대 이상)의 경우 많은 어형에서 옴라우트가 실현되고 임의로 만들어낸 새로운 단어에서도 옴라우트가 실현되는 것으로 미루어 공시적인 옴라우트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청년층(G_2 , 30대 이하)의 경우 공시적인 옴라우트 규칙은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그 까닭은 표준어의 영향이라고 하였다. 또한 10년

단위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움라우트 점수를 낸 결과 50대가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50대를 기준으로 움라우트 실현 정도가 확연히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보자 두 명의 움라우트 실현 양상은 다음 <표 1>과 같다.

| 동화주 | 제보자 (가) | 제보자 (나) |
|-----------|----------------|----------------|
| 형태소 내부 | [쟁끼~장끼](장끼) | [쟁끼](장끼) |
| 계사 -아- | | [디린다](드린다) |
| 명사화 접사 -기 | [뵈기~보기](보기) | [뵈기](보기) |
| 피동, 사동 접사 | | [깁긴다](감긴다) |
| | [깁킨다](깁인다) | [깁껴따](깁였다) |
| | | [넙겨쎄](넙겼어) |
| | [메긴다](먹인다) | [메긴다](먹인다) |
| | | [배키다](박히다) |
| | | [쎄여따](쎄였다) |
| | | [메긴다](벗긴다) |
| 명사화 접사 -이 | [돌자비~돌재비](돌잡이) | [마키다~매키다](막히다) |

<표1: 움라우트 실현 양상>

조사한 항목 대비 움라우트 실현 비율은 제보자 (가)의 경우 10.2%, 제보자 (나)의 경우 25%로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움라우트를 실현시켰던 1980년대의 고령층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고령층일수록 여성이 움라우트 실현 비율이 높고, 남성이 낮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여성인 제보자 (가)보다 남성인 제보자 (나)가 움라우트가 실현된 어형을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는 외부 인과의 접촉 빈도의 차이 등 두 제보자의 개인적인 환경 차이일 가능성이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 박경래(1984)에 따르면 당시 60대 이하의 연령층부터는 여성의 움라우트 점수가 남성의 움라우트 점수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했고 그 까닭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말을 더 우아하게 하려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괴산 지역어의 음라우트는 이제 고령층에서도 자주 쓰는 일부 어형을 제외하면 그 효력을 잃었고 생산성을 상실한 음운규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통시적인 음운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2.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교체란 주변 환경에 따라 동일한 기저형을 지니고 있는 형태소라도 그 음상이 달리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를 각각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즉 다양한 어미와의 결합형을 밝힘으로써 어간의 기저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것이 박경래(1984)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서술하며 어간의 재구조화(再構造化)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1) 체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체언의 자음교체 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 38개의 질문항목을 선정하고 각각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이’와 ‘에’와의 결합형을 살펴 보았다. 응답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 분류 | 조사항목 | 제보자 (가) | | |
|----|------|---------|----|---------------------|
| | | -이 | -에 | -은/는, -을/를, -(으)로 등 |
| A | 앞 | 아피 | 아페 | |
| | 옆 | 여피 | 여페 | |
| | 결 | 거치 | 거테 | |
| | 밑 | 미치 | 미테 | |
| | 빚 | 비시 | 비세 | |
| | 솔 | 소치 | 소테 | |
| | 낮 | 나지 | 나제 | |
| | 끝 | 끄치 | 끄테 | |
| | 걸 | 거치 | 거테 | |
| | 낮 | 나치 | 나제 | |
| | 것 | 거시 | 거세 | |
| | 옛 | 여시 | 여세 | |
| | 옷 | 오시 | 오세 | |
| | 낫 | 나시 | 나세 | |

| | | | | |
|---|----|-------|------|------------------|
| | 있 | 이피 | 이페 | |
| | 그릇 | 그르시 | 그르세 | |
| | 갓 | 가시 | 가세 | |
| | 여섯 | 여서시 | 여서세 | |
| | 맛 | 마시 | 마세 | |
| | 못 | 모시 | 모세 | |
| | 벗 | 말머시 | 말머세 | |
| B | 붓 | 부시 | 부세 | |
| | 젓 | 저시 | 저세 | |
| | 빚 | 비시 | 비세 | |
| | 뒋 | 더치~더시 | 더세 | |
| | 형깁 | 홍:거비 | 홍:거베 | |
| | 꽃 | 꼬시 | 꼬세 | |
| | 짚 | 지비 | 지베 | |
| | 숫 | 수시 | 수세 | |
| | 웃 | 유시 | 유세 | |
| | 팔 | 파시 | 파세 | 파슨(팔은), 파스루(팔으로) |
| | 웃 | 오자~오세 | 오세 | |
| | 목젓 | 목저시 | 목저세 | |
| | 날 | 나시 | 나세 | |
| | 술 | 수시 | 수세 | |
| | 부엌 | 뵤:기 | 뵤:게 | |
| C | 밭 | 바시 | 바테 | 바슬~바슬(밭을) |
| | 벼 | 벼시 | 벼테 | |

〈표2: 체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조사된 항목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표2. A)는 격조사 ‘이’, ‘에’와 결합할 때 모두 정서법과 같이 첫 음절의 종성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재음절화되는 어형들이다. (표2. B)는 정서법과 달리 ‘이’, ‘에’와 결합할 때 첫 음절의 종성이 ‘ㅅ, ㅂ, ㄱ’으로 교체되어 다음 음절로 연결되는 어형들이며, (표2. C)는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그 실현 양상이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는 어형들이다.

이를 박경래(1984)의 조사결과와 단순히 비교해 보면 노년층(G1)의 경우 A부류에 현재는 B부류에 포함되어 있는 ‘부엌, 젓, 빚’ 어형들이 포함되어 있고, B부류는 ‘뒋, 형깁’ 항목만 일치하며, C부류에 현재 A, B부류로 나누어 분포되어 있는 ‘술, 밭, 짚, 숫, 팔, 웃, 섶, 끝’ 어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즉 1984년의 조사결과보다 정서법

을 따르거나 ‘ㅅ, ㅂ, ㄱ’ 등으로 명사 발음이 재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어형들이 현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B부류에 속하는 어형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가. ㅅ: 꽃(꼬시, 꼬세, 꼬슬), 팔(파시, 파세, 파슨, 파스루), 젓(저시, 저세), 빗(비시, 비세), 덧(더시, 더세, 더스루), 숯(수시, 수세), 옷(유시, 유세), 옷(오지~오시, 오세), 목젓(목저시, 목저세), 날(나시, 나세), 술(수시, 수세)
 나. ㅂ: 형겅(흥:거비, 흥:거베), 짚(별지비, 별지베, 지별)
 다. ㄱ: 부엌(뵤:기, 뵤:게)

위에 밝혀 둔 B부류의 어형들은 명사 발음이 ‘ㅅ, ㅅ, ㅅ’ 으로 끝나는 경우에 모두 발음이 ‘ㅅ’ 으로 재구조화되고, ‘ㅍ’ 로 끝나는 어형들은 모두 발음이 ‘ㅂ’ 로 재구조화되며 ‘ㄱ’ 의 경우에는 ‘ㄱ’ 로 재구조화된다. (1-나)와 (1-다)의 경우 각각 음절말 끝소리 규칙에 따라 명사 발음이 평폐쇄음화된 형태가 모음 조사와의 결합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재 조사된 결과만으로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처격조사 ‘에’와의 결합에서까지도 평폐쇄음화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 형태가 괴산 지역에서 기저형으로 굳어졌음을, 즉 재구조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1-가)의 경우에 ‘ㅅ’ 으로 재구조화된 것은 설명을 달리한다. 이는 이병근(1975), 이기문(1987) 등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중세 시기에는 현대와 달리 음절말에서 ‘ㅅ’ 과 ‘ㄷ’ 이 서로 변별되었으며, 그 때문에 음절말의 ‘ㅅ, ㅅ’ 등은 당시 ‘ㅅ’ 으로 중화되었었고 16세기 이후부터 ‘ㅅ’ 과 ‘ㄷ’ 이 서로 섞여 쓰이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다. 현재는 음절말에서 ‘ㅅ’ 이 발음되지 않고 ‘ㄷ’ 으로 평폐쇄음화되어 발음되지만 외래어 표기에서 굿(good), 로켓(rocket)등 음절말 표기를 ‘ㅅ’ 로 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덧붙여, (1-가)와 같은 어형들이 현재에 보다 공식적으로 많이 발

견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전 연구에서 수의적인 교체를 하던 어형들인 ‘술, 밭, 짚, 솟, 팔, 옷, 섰, 끝’의 경우 ‘술, 밭, 끝’을 제외한 ‘짚, 솟, 팔, 옷, 섰’ 항목이 모두 B부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래 정서법을 따르던 ‘부엌, 젓, 빗’의 경우에도 역시 B부류로 옮겨갔다는 점으로 미루어 명사 말음 ‘ㅈ, ㅊ, 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의 결합에서 ‘ㅈ’으로 재구조화되는 이 수의적인 현상이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발음의 편리성 및 단일화를 추구한 결과이며, 이 현상이 과거에 비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철웅(1998: 233)에서는 충북방언에서 ‘ㅈ’의 비파열화는 우세한 편이며, 괴산 지역도 그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충북 북동쪽의 끝인 단양과 남쪽의 끝인 영동 지역으로 갈수록 세력이 미약해진다고 하였다.

(2)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는 다음 〈표3〉에서 보듯이 ‘젓’을 제외하고 어간말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박경래(1984)에서는 용언 어간말 자음교체는 조사된 어형 모두 어간말음을 유지하며, 따라서 체언의 어간말 자음교체와 달리,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난 어형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젓’에서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말음이 ‘ㅈ’으로 변형되므로 눈길을 끈다.

| 조사항목 | -고 | -지 | -으니까/으면 | -아/어(도), -았/었다 | -다, -은/ 는 |
|------|----|----|---------|-------------------|--------------|
| 알 | 꾸 | 찌 | 야트니까 | 야터 | 야트다,야튼 |
| 젓 | 진꾸 | 진찌 | 지스른 | 지서 | |
| 높 | 놈꾸 | 놈찌 | 노프니까 | 노파도 | |
| -싹 | 십꾸 | 십찌 | 시프니까 | 시퍼 | |
| 엮 | 역꾸 | 역찌 | 여끄니까 | 여껴따 | |

〈표3: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이에 대하여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인접지역인 경북방언의 영향이다. 경북방언에서 ‘짓다’의 활용형은 ‘지익꼬, 지선따’ 등이다. ‘짓다’ 어형에 있어서 경북방언이 전파되었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체언의 어간말 자음교체와 같이, 어간말음이 ‘ㄷ’인 어형이 모음어미와 결합될 때 어간말음을 ‘ㅅ’으로 교체하는 현상이 용언에까지 확장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방언자료집》(1987)에 따르면 용언의 경우 어간말 자음을 ‘ㄷ’ 또는 ‘ㅅ’으로 가진 어사가 여럿 있으나(예: 갖-, 굿-, 꾸짓-, 꽃-, 낫-, 늦- 등), 이 가운데 ‘꾸짓’, ‘짓’에서만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전철웅 1998: 229). 따라서 두 번째 가능성을 타당하다고 하기에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 근거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유형의 어형들을 위주로 조사를 더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⁵⁾.

3.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이란 중간에 형태소 범주 기호 이외에 아무런 경계 요소를 가지지 않는 자음들의 연속체를 말하며, 자음군 단순화란 국어의 음절말과 음절초에서 하나의 자음만 음성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음절구조 제약 때문에, 자음군에서 특정 자음이 탈락하는 음운 과정을 말한다.

국어에서 자음군을 지닌 체언과 용언은 그 수가 상당히 많다. 또한 자음군 단순화의 실현 양상은 자음군을 지닌 체언과 용언에 각각 어떤 어미가 결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방언간 차이도 상당한 편이다. 여기에서는 괴산 지역어의 자음군 단순화를 체언과 용언으로 나누어 조사된 항목을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선행연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서, 더불어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경북방언의 영향력 또한 다루고자 한다.

5) 국립국어원 편, 《(2009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9)에서도 ‘짓’을 제외한 어형들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1) 체언의 자음군 단순화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체언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다음 〈표 4-1〉과 같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격조사 ‘이’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보조사 ‘도’와의 결합을 보았고, 필요에 따라 ‘-을/를’과의 결합형 등을 추가로 질문하기도 하였다.

| 조사항목 | | -이 | -도 | -을/를, -은/는 |
|------|----|---------|------|------------|
| ㄱ계 | 넋 | 넋씨 | 넋뚜 | |
| | 몫 | 몫씨 | 몫뚜 | |
| | 쌔 | 폼싸기 | 폼싸뚜 | 폼싸근(폼쌔은) |
| 래계 | 여덟 | 여더리 | 여덜두 | |
| ㅂ계 | 값 | 갑씨 | 갑뚜 | 가불(값을) |
| ㄷ계 | 칩 | 치기 | 척두 | |
| | 까닭 | 까다가~까달기 | ?까달두 | |
| | 닭 | 달기 | 닥뚜 | |
| | 흙 | 호기 | 혹뚜 | 호글,호걸(흙을) |

〈표4-1: 체언의 자음군 단순화〉

박경래(1984)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노년층(G1)의 경우 ‘갑씨~가비(값이)’, ‘넋씨~너기(넋이)’ 등으로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며 청년층(G2)의 경우 자음군이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가비(값이)’, ‘너기(넋이)’ 등으로 고정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위의 〈표4-1〉와 같이 ‘ㄱ’ 계 자음군 ‘넋, 몫, 쌔’은 모두 규칙적으로 어간말에 첫 번째 자음 ‘ㄱ’을 남긴다. ‘래’ 계 자음군은 ‘여덟’ 뿐이지만 ‘ㄹ’을 남기며 주격조사 ‘이’와의 결합에서 ‘ㄴ’을 탈락시킨다. ‘ㄷ’ 계 자음군에는 두 번째 자음 ‘ㄷ’을 남기는 ‘칩, 흙’과 어미의 종류에 따라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는 ‘까닭, 닭’이 있다.

특이한 사항은 ‘까닭, 닭’의 경우에 그간 충청북도 방언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현상으로 어간말에 ‘ㄹ’이 남는(‘달기, 까달기, 까달두’⁶⁾)

6) ‘까닭이’, ‘까닭도’의 방언형을 재차 확인하였으나 제보자는 확실히 ‘까다가, 까달두’보다는 ‘까달기, 까달두’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등) 수의적인 교체가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인접지역인 경상북도 방언의 전파로 인한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조사 보고서인 국립국어원(2010)을 참고하면 다음 〈표4-2〉, 〈표4-3〉과 같다(국립국어원 2010)⁷⁾

| 지역 항목 | 의성 | 청도 | 고령 | 청송 | 상주 | 경주 |
|----------|-------|------|---------|-------|-------|-------|
| 닭-이 | 달 '기 | 다 '리 | 다 '리 | 다 '리 | 다 '기 | 다 '기 |
| 닭-을 | 달 '글 | 다 '를 | 다 '를 | 달 '글 | 다 '글 | 다 '글 |
| 닭-에서 | 달 '게서 | 다 '레 | 다 '레 | 달 '게 | 다 '게씨 | 다 '게서 |
| 닭-으로 | 달 '그로 | 달 '로 | 다 '끄로오' | 달 '그로 | 다 '그로 | 다 '그로 |

〈표4-2: '닭' - 경북 지역어의 예시〉⁸⁾

| 지역 항목 | 제천 | 청원 | 충주 | 옥천 | 보은 |
|----------|-----|-----|-------|-----|-------|
| 닭-이 | 달기 | 다기 | 다기 | 다기 | 대키/다키 |
| 닭-을 | 다글 | 다걸 | 달걸/다걸 | 다걸 | 다큰/다글 |
| 닭-에서 | 달개 | 다칸태 | 다개 | 다개 | 다개 |
| 닭-으로 | 다그루 | 다그루 | 다그루 | 다그루 | 다크루 |

〈표4-3: '닭' - 충북 지역어의 예시〉

위의 〈표4-2〉에서 볼 수 있듯이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ㄹ' 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주, 경주 지역에서만 중부지방과 같이 'ㄹ' 을 탈락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표4-3〉에서는 중부지방의 특징대로 충청북도 지역에서 'ㄹ' 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천과 충주 지역에서 수의적으로 '달기' , '달개' 등의 음성형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개의 자료를 통해 앞에서 제시한 본 방언조사에서의 '달기' , '까달기' 등의 음성형이 경북방언의 전파로 인한 것이라고 추

7) 국립국어원 편(2010), '2010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음운·문법)' 와 '2010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음운·문법)' 을 참고하였다.

8) 해당 음절이 고음인 경우 오른쪽 어깨에 [ˊ] 표기를 달았다(원문 표기 그대로 인용).

측해볼 수 있다.

물론 이 현상이 표준발음의 영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⁹⁾ 특히 서울과 가까운 중부지역에서는 표준발음의 영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여하간 이전까지는 이 지역어에서, ‘닭’에 대하여 그 음성형이 ‘닥’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설명하는 연구 및 조사 보고가 대부분이었는데(방언연구회(2001), 전철웅(1998), 박경래(1984), 국립국어원(2009) 등),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이번 조사에서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모두 31개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대의 제보자 두 명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제보자 (가)의 응답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5-1>와 같다.

| 조사항목 | | -고 | -지 | -으니까 | -아/어(서), -아/어(도), -았/었다 | -(는)다, -더라,-구 나,-(으) 면 등 |
|------|----|-----|-----|---------|-------------------------------|-----------------------------------|
| ㄹ계 | 끓 | 끓꾸 | 끓찌 | 끓므니까 | 끓머따 | 끓는다 |
| | 옴 | 옴꾸 | 옴찌 | 옴므니까 | | 옴는다 |
| | 쌈 | 쌈꾸 | 쌈찌 | 쌈므니까 | 쌈머 | 쌈는다 |
| | 담 | 담꾸 | 담찌 | 담므니까 | 담머씨, 달마따 | |
| ㄴ계 | 안 | 안꾸 | 안찌 | 안즈니까 | 안저꼬,안저따 | |
| | 언 | 언꾸 | 언찌 | 언즈(지)니까 | 언저따 | |
| ㄴ계 | 끓 | 끓꾸 | 끓치 | 끓느니까 | 끓너서 | |
| | 만 | 만꾸 | 만치 | 만느니까 | 만너서 | 만타 |
| | 괜찮 | 괜찬꾸 | 괜찬치 | 괜찬느니까 | 괜찬너 | |
| | 귀찮 | 귀찬꾸 | 귀찬치 | 귀찬느니까 | 귀찬너 | |
| ㄹ계 | 알 | 알꾸 | 알치 | 알르니까 | 알라서 | |

9) 표준 발음법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 | | | | | |
|----|------------------|-------|-------|---------------------|----------|-------------------|
| | 똥 ¹⁰⁾ | 똥꾸 | 똥찌/ 찌 | 뚜루니까, 똥루 니까/똥버니까 | 똥러따 | 똥른다/ 는다 |
| | 싫 | 싫꾸 | 싫찌 | 시르니까 | 시러 | |
| | 달 | 달꾸 | 달찌 | 다르니까 | 다러따, 다러도 | 달투룩, 달른다 |
| | 끓 | 끓꾸 | 끓찌 | 끄르니까 | 끄러 | 끓린다 |
| | 올 | 올꾸 | 올찌 | 오르니까 | 오러 | 올타 |
| | 끓 | 끓꾸 | 끓찌 | 꾸루니까 | 꾸러 | |
| ㄹ계 | 홀 | 홀꾸 | 홀찌 | 홀트니까 | 홀터 | 홀른(런)다 |
| | 할 | 할꾸 | 할찌 | 할트니까 | 할터 | 할른다 |
| ㄴ계 | 넌 | 넌꾸 | 넌찌 | 넌부니까 | 넌버, 넌러따 | 넌따 |
| | 뜰 | 뜰꾸 | 뜰찌 | 뜰브니까 | 뜰(틀)버 | 뜰따, 뜰꾸나 |
| | 발 | 발꾸 | 발찌 | 발브니까 | 발버서 | 발는다 |
| | 알 | 알꾸 | 알찌 | 알브니까 | 알버 | 알따 |
| | 잘 | 잘꾸 | 잘찌 | 잘브니까 | 잘버서 | 잘따 |
| ㄷ계 | 굴 | 굴꾸 | 국찌 | 굴그니까 | 굴거, 굴거따 | 굴 근, 굴 그 면, 국따 |
| | 말 | 말꾸 | 말찌 | 말그니까 | 말가 | 말따 |
| | 글 | 글꾸 | 극찌 | 글그니까 | 글거서 | 극는다 |
| | 일 | 일꾸 | 일찌 | 일그니까 | 일거 | 잉는다 |
| | 발 | 발꾸 | 발찌-박찌 | 발그니까 | 발거 | 박따, 박따러 |
| ㅂ계 | 없 | 엎(읍)꾸 | 엎찌 | 엎스니까 | 엎써 | 엎따 |

〈표5-1: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 제보자 (가)〉

비음이 포함되어 있는 자음군인 ‘ㄹ’, ‘ㄴ’, ‘ㅇ’ 계 자음군에서는 모두 비음이 남는다. 또 ‘없다’의 ‘ㅂ’ 계 자음군은 첫번째 자음인 양순음 ‘ㅂ’이 남고 ‘ㅅ’은 ‘ㄷ’으로 평폐쇄음화한 뒤 어미를 경음화시킨다. 여기까지는 박경래(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표준 발음과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ㄹ’ 계 자음군(‘ㄹ’, ‘ㄹᄇ’, ‘ㄹᄃ’, ‘ㄹᄂ’ 계 자음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ㄹ’ 계 자음군은 ‘ㄹ’ 계 자음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ㄹᄃ다’, ‘ㄹᄂ다’, ‘ㄹᄃ다’가 어미 ‘다’, ‘지’와 결합할 때에만 두 번째 자음

10) ‘똥’의 경우에 제보자 (가)의 응답형이 ‘똥꾸, 똥찌, 뚜루니까, 똥러따, 똥른다’ 형이고 제보자 (나)의 응답형이 ‘찌, 똥버니까, 는다’형이다. 이 두 제보자는 ‘똥다’에 관해 각각 다른 두 가지 어형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ㄱ)이 남고, 이를 제외한 다른 ‘ㄹ’ 계 자음군의 어형들은 모두 첫 번째 자음인 ‘ㄹ’ 이 남는다. 박경래(1984)에서는 노년층(G₁)의 경우 ㄹ계 자음군에서 대체로 두 번째 자음이 남고, 청년층(G₂)에서는 첫 번째 자음(ㄹ)이 남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중간 연령층인 50대가 혼란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ㄹ’ 계 자음군에서 두 번째 자음이 남는 것은 중부방언의 본래 특징인데,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동남방언의 영향으로 ‘ㄹ’ 이 남는 쪽으로 단일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비슷한 시기 과산과 인접 지역인 경상북도 문경지역어의 자음군단순화를 다룬 박경래(1985)를 참고할 수 있었다.¹¹⁾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제보자는 1980년대 초 당시 50대였으리라 추측된다. 당시 ‘ㄹ’ 계 자음군의 실현에 있어 혼란을 보였던 연령층이었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에는 ‘ㄹ’ 을 남기는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졌음을, 거의 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추가 조사로 실시한, 현재 50대의 제보자 (다)의 응답형을 살펴보면 보다 더 확신할 수 있다(〈표5-2〉).

| 조사항목 | -지 | -고 | -으니까 | -더라 | -아/어 |
|------|-------|----|---------|--------|------|
| 않다 | 알치 | 알꾸 | 아르니까 | 알터라 | 아러 |
| 훈다 | 홀치(찌) | 홀꾸 | 홀(홀)트니까 | 홀떠라 | 홀터 |
| 널다 | 널찌 | 널꾸 | 널부니까 | 널떠라 | 널버 |
| 굶다 | 굴찌 | 굴꾸 | 굴구니까 | 굴(국)떠라 | 굴거 |
| 맑다 | 말찌 | 말꾸 | 말그니까 | 말떠라 | 말거 |
| 글다 | 글찌 | 글꾸 | 글그니까 | 글떠라 | 글거 |
| 일다 | 일찌 | 일꾸 | 일그니까 | 일떠라 | 일거 |
| 발다 | 발찌 | 발꾸 | 발그니까 | 발떠라 | 발거 |
| 갈다 | 갈찌 | 갈꾸 | 갈그니까 | 갈떠라 | 갈거 |

〈표5-2〉 용언 자음군 단순화 - 제보자 (다)

위의 〈표5-2〉는 ‘ㄹ’ 계 자음군 위주로 제보자 (다)의 ‘ㄹ’ 계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정리한 것이다. 제보자 (가)의 경우 두 번째 자음

11) 박경래(1985)에 따르면 문경방언에서 ‘ㄹ’ 계 자음군을 가진 체언의 경우 모두 ‘ㄹ’ 이 남고 두 번째 자음이 삭제된다고 하였다.

을 남겼던 ‘국따, 국찌, 극따, 극찌, 박따, 박찌’ 등의 경우에도 한 세대 뒤의 제보자 (다)는 모두 ‘ㄹ’을 남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현재의 50대에는 ‘ㄹ’계 자음군 단순화에 있어서 첫번째 자음인 ㄹ을 남기는 방식이 고정된 셈이다. 박경래(1984) 및 기타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대로, 또한 이제까지 살펴본 이번 조사에서의 음운 현상들에서 경북방언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살필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괴산 지역어의 이러한 변화 양상은 경북방언의 전파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앞에서 참고한 국립국어원(2010)의 관련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 항목 | 충북 제천 | 충북 충주 | 경북 의성 | 경북 경주 |
|----------|--------|-------|-------|-------|
| 꺾-고/더라 | 구:꾸 | 국:떠라 | 굴:꼬 ‘ | 굴:꼬 |
| 맑-고/더라 | 말꼬/막떠라 | 막떠라 | 말 ‘꼬 | 말 ‘꼬 |
| 얹-고/지 | 얹:꾸 | 얹:찌 | 얹:꼬 ‘ | 얹:꼬 |
| 짧-고/더라 | 짧꾸 | 짜르더라 | 짧 ‘꼬 | 짧 ‘꼬 |
| 훅-고/더라 | 헐꾸 | 헐떠라 | 할 ‘꼬 | 홀 ‘꼬 |

〈표5-3: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 충북과 경북 지역어 예시〉

〈표5-3〉은 비음을 포함하지 않은 ‘ㄹ’계 자음군 중에서 ‘ㄹ’계 자음군을 지닌 용언 어간 ‘꺾다, 맑다’와 그 외 어간 ‘얹다’, ‘짧다’, ‘훅다’ 등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 -지, -더라’ 등과 결합한 음성형을 정리한 것이다. 비록 위에 제시한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자음군 단순화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비음을 포함하지 않은 ‘ㄹ’계 자음군은 첫 번째 자음 ‘ㄹ’을 남기는 것을 알 수 있고 충청북도 지역에서도 그 현상이 발견되나 본 연구에서의 방언조사 결과와 같이 ‘ㄹ’계 자음군의 경우에는 두 번째 자음을 남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같은 항목에 대한 경북방언형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대체로 ‘ㄹ’계 자음군의 경우 ‘ㄹ’을 남기는 방식으로 자음군 단순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충북 방언은

박경래(1984)에 따르면 과거에는 두 번째 자음을 남기는 방식이었으나, 본 연구의 방언조사와 위에 제시한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에는 경북방언의 영향으로 첫 번째 자음인 ‘ㄹ’을 남기는 현상이 확대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남은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이는 왜 ‘ㄹ’계 자음군의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다른 자음군에 비해 인접방언의 영향을 적게 받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용언에서 ‘ㄹ’계 자음군이 다른 자음군과 구별되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부류의 용언들은 주로 자음 어미 ‘다’, ‘지’와 결합될 때 두 번째 자음을 남기며 본 방언의 특징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이를 살필 때에 용언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에서 비롯되는 까닭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예시를 통해 방언 간 특징의 집축 및 전파에 있어서 어떤 언어적 특징이 먼저 전파되고 또 어떤 언어적 특징이 후에 전파되는지 등에 대한 일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에서보다 심화된 방언조사와 보다 많은 양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방향으로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IV. 결론

이제까지 충청북도 괴산 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해 현지 방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80년대 초의 연구와 비교하여 드러나는 차이점을 주로 다루어 보았다. 음운현상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음라우트, 체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다루었다. 이 글에서 논의된 내용을 3장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음라우트 현상은 과거에 비해 그 발생 빈도수가 현저히 낮아져 자주 쓰는 일부 어형을 제외하면 괴산 지역어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움라우트는 생산성을 거의 상실한 통시적인 음운현상이라고 결론내렸다. 또 제보자 두 명이 움라우트 실현 양상에 있어 차이를 보였으므로 그 차이의 원인을 성별이나 심리적인 요인, 개인의 차이 등으로 정리해 보았다.

체인과 용언의 어간말 자음교체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체인의 자음교체 현상에서는 어간말음 ‘ㅍ, ㅋ, 스, 츠, 트’ 등이 ‘ㅂ, ㄱ, ㅅ’ 으로 재구조화된 현상이 과거보다 보편적임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과, 과거에 수의적인 교체를 보였던 어형들도 현재는 정서법을 따르거나 또는 재구조화된 어형으로 고정되었다는 특징을 주로 다루었다. 이어서 용언의 자음교체 현상에서는 용언 어간 ‘짓’ 의 예시를 통해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경북방언의 영향력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서는 역시 체인과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구분하여 다루었다. 체인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서는 본 방언조사와 관련 조사자료를 참고하여 ‘ㄹ’ 계 자음군 단순화에서 경북방언이 전파되었다고 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였다. 또한 용언의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ㄹ’ 계 자음군이 특징적이었는데 대부분 경북방언과 같이 어간말음에 ㄹ을 남기는 쪽으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굳어졌으며 이는 한 세대 아래인 50대 제보자에게서 더욱 뚜렷했다. 이를 통해 경북방언의 영향력이 30년 전보다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는 30여년의 시간 이후 같은 지역의 언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밝히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다룬 현상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조사된 현상들을 통하여 그 지역의 언어가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었다. 이제 보다 심화된 방언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면, 제시된 것보다 많은 어형을 조사하여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언접촉의 양상과 타 방언의 전파, 이 지역어가 보이고 있는 접촉 방언의 특징들을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방언 접촉의 양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이는 것 또한 남은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편(2009), 《(2009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_____(2009), 《(2009년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_____(2009), 《(2009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_____(2010), 《(2010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_____(2010), 《(2010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편(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태학사.
- 김봉국(2005), ‘음운 조사 질문지’, 방언학 2, 한국방언학회.
-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규·정승철 공저(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박경래(1984), ‘괴산방언의 음운현상에 대한 세대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1985), ‘괴산방언과 문경방언의 자음군단순화에 대한 세대별 비교고찰’, 방언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 _____(2003), ‘기획논문: 충청북도 방언의 연구와 특징’, 한국어학 vol.21, 한국어학회.
- _____(2007), 《충북 제천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_____(2009), 《충북 청원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방언연구회 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서정목(1981), ‘경남 진해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에 대하여’, 방언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 성석제(2004), ‘충북과 경북 지역간의 방언경계에 대하여 : 몇몇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문(1987), 《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이병근(1975), ‘음운규칙과 비음운론적 제약’, 국어학 vol.3, 국어학회.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전철웅(1998), 《충북 방언의 역사적 연구 : 어형 및 음운 변화를 중심으로》, 보고사.

정승철(2006), ‘음운 연구와 방언 조사 방법’, 방언학 3, 한국방언학회.

최명옥(1988), 《국어 음운론과 자료》, 태학사.

_____(2008), 《국어 음운론》, 태학사.

인터넷 사이트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goesan.go.kr

네이버 지도, <http://maps.naver.com>

한국학 중앙 연구원 홈페이지, www.aks.ac.kr

구글 이미지, <http://images.google.com>